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승경의 전통[†]

노재현* · 신병철** · 한상엽***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우석대학교 자원개발 및 환경계획연구소

A Study on the Traditionary Famous Sceneries of Jeju-island through T'amna-Sipkyung and T'amna-Sullyöкто

Rho, Jae-Hyun* · Shin, Byung-Chul** · Han, Sang-Yub***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Joongbu University

***Human Capital and Resource Development Environment Center,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look at the identity of the traditional famous sceneries of Jeju Island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Yeoung Ju-Sipikyung(瀛州十二景)',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beautiful scenes of Jeju Island, and two paintings 'T'amna-Sipkyungdo(耽羅十景圖)' and 'T'amna-Sullyöкто(耽羅巡歷圖)' by a grasp of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these two painting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In the 'T'amna-Sipkyung', which is the origin of today's 12 beautiful sceneries of Jeju Island, Baekrokdam and Youngsil are both symbolic places and the backdrops against which Jeju's myths were formed. Jocheonjin, Seogwijin and Myoungwoljin, located near the seashores, are strategic footholds in protecting the territory of the island and connotatively contain its culture and history. Seongsan Ilchulbong, Sanbongsan, Chwibyeongdam and Cheonjeyeon Pokpo are not only the quintessentially beautiful scenes of Jeju but also belong to 'YeoungJu-Sipikyung'. And 'T'amna-Sullyöкто', which describes the Jeju horses and tangerines that were presented to the king as tribute, offers scenic elements with a strong political tone and is related to the five scene of 'T'amna-Sullyöкто', showing that 'defense' and 'tribute' are motives in choosing the sceneries of people's daily lives here.

Jeju's daily scenes in particular have been continuously transmitted: 'Idyllic lives with the background of a tangerine orchard' are shown in 'Kowön Panggo' and 'Kyullim P'ungak', and Jeju horses grazing on pastures or being ridden in hunting trips are presented in 'Sanjang Kuma' and 'Kyorae Taeryöp'. Besides Baekrokdam and Youngsil, which do not belong to Sunyeok(巡歷) corridor of minister Lee Hyoungsang, 'Yeoung Ju-Sipikyung', directly related to 'T'amna-Sipkyung', has six beautiful sceneries: Seongsan of Seongsan Ilchulbong, Baekrokdam of Baekrokmanseol, Younggok of Youngsilgiam, Sanbang of Sanbangulsa Chwibyeongdam of Yongyeonyabeom and Seogwiso of Seojinnoseong.

The image of 'Gosumokma', the tenth landscape of 'Yeoung Ju-Sipikyung', was expressed as it is, through 'Udojeomma' and 'Sanjangguma'. The ten beautiful sceneries of 'T'amna-Sipkyung' were also especially described in 'T'amna-Sullyöкто', besides Baekrokdam and Youngsil, which do not belong to Sunyeok corridor.

[†]: 본 논문은 2009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Jae-Hyun Rho, Dept. of Landscap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Samnye-eup, Wanju-gun, Jeollabuk-do 565-701, Korea, Tel: +82-63-290-1494, E-mail: orchid@woosuk.ac.kr

As the places and landscapes emphasized on 'T'amna-Sipkyungto' and 'T'amna-Sullyöktö' in common have been transmitted by the politicians and ancestors of Jeju Island, they have become established as today's 'Yeoung Ju-Sipikyung', passing through correction processes. When considering this process of development, 'Yeoung Ju-Sipikyung' are worthy of heritage and traditional landscapes accomplished in a long difficult period based on investigation into beautiful Jeju Island and the love of the island people for their home.

Key Words: Traditional Landscape, YungJu-sipikyung, Jeju Island, Landscape

국문초록

『탐라십경도』와 『탐라순력도』에 표현된 경관내용과 그 의미를 파악하여 현재 제주의 대표적 전통경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영주십이경과의 관련성 및 변천과정을 밝힘으로써 제주 승경의 정체성과 전통을 조명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 집경(集景)의 시원이 되는 탐라십경 중 백록담과 영실은 제주 신화 형성의 장(場)이자 상징체이며 해안에 포진된 조천진, 서귀진, 명월진은 강역 사수의 요충지로서 역사문화성을 함축한다. 그리고 성산 일출봉과 산방산, 취병담, 천제연폭포는 지금도 대표적인 제주 경승이자 영주십이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탐라순력도에서 보이는 제주마를 비롯 감귤진상과 관련된 5장의 봉진 그림 속에 담겨진 '방어'와 '조정 진상'은 정치적 색채가 강한 제주 풍물경관이다. 특히 '고원방고'나 '굴림풍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감귤림을 배경으로 한 풍류'나 '산장구마'나 '교래대협' 등에서 볼 수 있는 '방목된 제주마와 수렵생활' 등은 제주 고유의 풍물상으로 꾸준히 전승되었다. 탐라십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영주십이경은 이형상목사의 순력회랑에서 벗어난 백록담과 영곡을 배제한다면 '성산일출'의 성산, '백록만설'의 백록담, '영실기암'의 영곡, '산방굴사'의 산방, '용연야범'의 취병담 그리고 '서진노성'의 서귀소 등 총 6개 경승이다. 그밖에 탐라순력도의 '우도점마'와 '산장구마' 등을 통해 영주십이경의 제 10경인 '고수목마'의 경관이미지가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다. 또한, 탐라십경의 10개 경승은 순력회랑에서 배제된 백록담과 영곡을 배제하고는 모두 탐라순력도에 직간접적으로 집중 조명되고 있다.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에서 공히 강조되고 있는 공간 및 장소 그리고 경물은 제주의 위정자 등 선인들에 의해 꾸준히 전승되는 가운데 첨삭과정(添削過程)을 거쳐 오늘의 영주십이경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주십이경은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탐구와 향토애에 대한 시적 표현을 빌려 오랜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유산경관이자 전통경관이 아닐 수 없다.

주제어: 전통경관, 영주십이경, 제주도, 경관

1. 서론

제주와 제주인은 도서성과 서민성 짙은 문화 특성을 간직하고 전승하면서 '삼다(三多)'가 빚어낸 독특한 지역 공동체를 꾸려 왔다. 육지의 풍광과는 다른 산악문화와 해양문화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천연미적 자연환경을 보유한 제주도(신영대, 2004)는 한라산과 산록의 모습이 어우러져 독특한 지형경관을 이루고 있다(김태호, 2002). 제주관광의 모토(motto)이기도 한 '지방색을 살린 토속적이고 풍토성 강한 경관의 발굴 및 조명'은 '제주다움'에 가까이 다가가는 첩경이 아닐 수 없다. 제주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찾아내고 경승 제주의 경관 정체성을 보다 면밀히 구명하는 것은 토속적 문화경관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 발굴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 때, 제주 고유 상품의 가치 발굴 및 의미 부여도 독특한 제주의 풍광이란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제주 전래 경승과 승경관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제주 경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현재 전해져 오는 제주의 '집경(集景)' 중 그 연원이 분명하고 가장 오래된 '탐라십경(耽羅十景)' 이후 제주도의 경승 형상화 과정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승경관을 주목하고자 한다. 17세기 후반에 특정 지역의 승경을 한 단위로 유형화한 '팔경도', '십경도' 등은 중국의 소상팔경도 이후에 문인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정체성 자각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다. 제주에서도 목사 등 치자계층에 의해 경관에 이름

을 붙이고 팔경·십경 등으로 유형화하여 시문으로 표현하거나 회화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승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동반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승경의 인식은 본인이 활동하는 지역의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의식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점차 감상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였다(이보라, 2007).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대표적 승경으로 익히 알려진 영주십이경의 근원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주 경관 중 유서 깊은 제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 추적된 자료 중 가장 명료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이다. 본 연구는 상기 두 개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제주 승경이 어떤 형상화 과정을 거쳐 영주십이경으로 전승되었는가를 추적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II. 이론 고찰

1. 제주 경관의 집경

이익태 목사의 탐라순력도는 지금까지 발표된 역사 자료 가운데 제주인의 의식 속에 투영된 경관상을 추정하는데 가장 유효한 자료이다. 물론 탐라순력도 제작 101년 전인 1601년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750~1652)이 5개월에 걸쳐 직접 제주를 둘러보며 제주의 풍물을 상세히 적어 입필하여 왕에게 복명한 남사록(南槎錄)¹⁾이 전해오고 있지만 견문록 형태로 제주의 사회상이 집중 설명되고 있고, 제주 경승에 대한 집경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1693년 제주 삼읍의 수려한 다수 경관 중에서 내세울 만한 장소 10경을 가려내고 이를 선양하기 위해 제작된 탐라십경도는 문헌 기록상 최초로 제주 경승을 집경하고 제주 이외의 지역에 알려지려 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로부터 9년 후인 1702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李衡祥)²⁾(그림 1 참조)은 순력에 따른 명승지 탐승 등을 시간 순으로 그려 41면 화폭의 탐라순력도첩³⁾을 제작하였다. 탐라순력도는 유일하게 순력을 통해 당시의 제주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도첩으로 도엽 중 하나인 '한라장축'은 제주도 단독의 고지도로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여기에는 제주 삼읍의 읍성과 관아건물 배치 상황, 진의 위치와 구조, 봉수와 연대 등을 이해하고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제주의 경관과 자연환경, 풍물 등 제주문화사를 이해하는데도 매우 유익한 자료이다(제주홍사단, 2005).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집경 관련 연구로는 국문학적 분야의 연구가 대부분 알려져 있다. 김새미오(1999; 2006)가 매계 이한우의 시세계 분석을 통해 영주십이경의 형상화를 추구하였으며, 한학자 오문복(2005)은 영주십경 관련시를 모아 영주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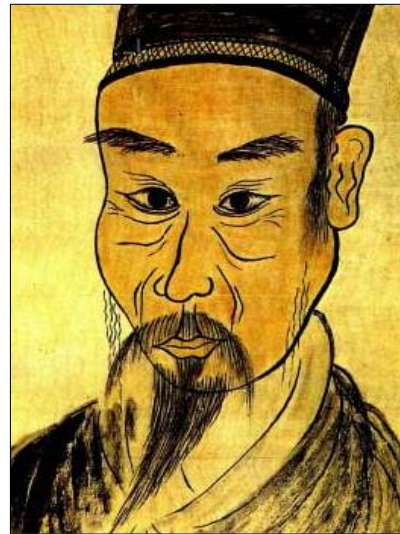


그림 1. 병와 이형상 초상
자료: 제주홍사단 문화유산답사회, 2005: 속표지

경 시집을 엮었다. 역자는 매계 선생 문집과 제가음영집의 영주십경시를 대본으로 김창현(1827~1875)과 이용직(1833~1895) 등 12인의 시를 추가한 총 13수를 통해 선인들의 풍류상을 조명한 바 있다. 노재현 등(2008) 등은 영주십경의 형식구조와 의미내용을 통해 제주도에 전래되고 있는 제주의 경승관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김상범 등(2008)은 제주도 우도팔경의 경관내용과 의미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제주 경승의 시원이라고 보는 탐라십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탐라순력도 관련 연구도 정치사회적 측면에 비중을 두었을 뿐 순력과정에서 표현한 자연 및 문화경관의 경관적 가치에는 크게 주목하지 못하였다.

한편, 제주 경승에 대한 집경 흔적을 살펴보면 현재 제주도를 대표하는 경관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영주십경'이 있다. 영주십경은 1840년 초반 제주목사를 지낸 이원조가 명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보다 앞서 조천리 출신 문인이었던 매계 이한우의 '매계선생문집'에 수록된 영주십경시를 통해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남만리의 '탐라지'에 보면, 영주십경 대신 제주 절경 11곳을 선정한 '제주십일경'이 언급되고 있으며, 김두봉(1936)의 '제주도실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주십경가'에도 10개의 경승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예로부터 제주의 절경을 품제한 뒤 시를 짓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던 시·서·화 풍류가 제주도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2. 고지도로 본 경승

지도는 지역공간의 투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등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과 활동의 결과가 각인된 그림이며 정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볼 때 그림이나 지도 등으로 전승되고 있는 제주 전래경승 또한 탐라인들이 이루어 놓은 정신과 물질의 총화일 뿐 아니라 선인들의 얼과 슬기가 담긴 문화자원으로 보배로운 문화유산이다. 또한 고지도나 회화식 지도는 과거에 선인들이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인문적·자연적 환경은 물론 토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의 시대적인 배경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사를 이해하고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귀중한 '정보원'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고지도를 통해 시대배경과 그 사조를 분석하는 작업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환경과 지역에 대한 특성을 과거의 특정 시대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단서이자 선인들의 경관관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탐라순력도첩'에서 나타나는 탐라십경과 후대본의 정형화된 탐라십경도는 지형의 구도와 시점 등이 거의 흡사한 것으로 볼 때 제주의 전형적 경관으로 꾸준한 전승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해 보인다. 그 이유는 시대에 따라 화풍과 배경의 변화는 나타나지만 기본적인 해안선 모양 등의 형태와 명승을 바라보는 시점이 동일한 것은 제주명승도의 기본적인 성격이 회화식지도의 평면구성을 빌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탐라십경과 함께 탐라순력도는 제주의 대표적인 경관지의 옛 모습을 재구성하여 제주가 지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추정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III.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대상

1) 탐라십경도

제주의 옛 이름인 탐라의 아름다운 열 개 경치를 그린 그림의 원전(原典)이라 할 수 있는 이익태의 탐라십경도 원본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지영록'에는 조천관, 별방소, 성산, 서귀소, 백록담, 영곡, 천지연, 산방, 명월소, 취병담 등 10 곳의 경승지가 언급되고 있다. 이익태 목사는 17세기 후반 제주목사로 재임하면서 남겨 놓은 '지영록'에서 탐라의 10경을 선정한 뒤 그 10경을 '청룡면수모형화'로 10폭의 병풍을 만들고 그 위에 10경에 대한 사적을 상세히 기술해 놓았다(이보라, 2007). 탐라십경도는 2005년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개최된 이완희 선생 기증유물특별전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바 있으며, 이밖에도 17세기 말 만들어진 작가 미상의 국립민속미술관의 두 본과 일본 고려미술관본이 알려져 있다. 그림 2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탐라십경도로 조천관과 별방진은 미발굴 상태이다. 현존 작품의 세부 내용과 양식은 거의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십경도는

일정한 정형화 과정을 거쳐 후대까지 그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2) 탐라순력도첩

탐라순력도는 병와(甁窩) 이형상 제주목사 재임 당시인 숙종 28년에서 29년(1702~1703)에 제주도 관내를 순력하면서 자연, 역사, 산물, 풍속 등을 제주목 소속으로 추정되는 화공 김남길의 그림과 오씨 노인이 쓴 글씨를 41폭의 채색그림으로 그린 화첩으로, 표지는 청회색 무늬가 있는 고급 비단으로 표구되어 있다. '탐라순력도첩'의 실경화풍은 평면적인 지도를 확대해 놓은 듯한 지형에 먹으로 선을 그리고 칠한 후 다양한 색으로 채색했으며, 부감시(俯瞰視)를 사용해 멀리서 조망하는 형태와 정면에서 조망하는 형태 등으로 그렸다. 서문의 기록으로 보아 1703년 5월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오랫동안 그의 후손들이 관리해 왔으나, 현재는 기증되어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형상의 '남환박물'³⁾과 함께 제주를 소개한 귀중한 자료로 1979년 보물 제652-6호로 지정되었다.

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제주도 전래경관상의 하나인 탐라십경의 형식과 내용 등 성격의 파악이며, 둘째는 탐라순력도에 표현된 탐라십경 및 한라산 등 제주 풍물과 경승지와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이며, 셋째는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 제작 이후 영주십이경의 형성과정까지를 통해 본 제주 승경관의 변모과정 추적 등으로 세분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기본 텍스트는 국립민속박물관본 탐라십경도와 제주도(2002) 발간, 탐라순력도 영인판 제4판이다. 현재 제주도의 대표적 경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영주십경(노재현 등, 2007)⁴⁾과 거기에 18세기 중반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증보탐라지 등에 의해 2개 경이 추가되어 제영된 '영주십이경'을 제주의 전통적 승경의 어원으로 취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해 제주 승경에 대한 제영 등의 집경 내용을 시대 순으로 정리 고찰하였으며, 탐라십경도와 탐라순력도에 표현된 경물 및 지명 등을 고찰하고 그 형식과 구성 및 의미를 분석하였다. 특히, 탐라순력도에 묘사된 제주 경관요소를 한라산과 오름, 읍성과 사적, 숲, 동굴과 폭포 등으로 나누어 관찰하고 탐라순력도 중에서 경관묘사가 탁월하거나 비중이 큰 도엽 등에 대해 주제를 별도로 조망하는 방식으로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경승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대표적 제주 승경으로 인식되고 있는 영주십이경과 탐라십경 그리고 탐라순력도에서의 표현 경물과 그 관련성을 분석하고 제주 경승의 전승 및 형상화 과정을 최종 논의함으로써 제주 승경의 구축과정과 그 의미를 추론하였다.



그림 2. 탐라십경도
 자료: 강창룡, 2004: 4. 필자 재인용

IV. 결과 및 고찰

1. 제주 승경의 집경

표 1과 같이 제주의 경치를 품제하고 가장 풍광이 뛰어난 곳을 집경한 사례는 다수 있다. 조선 현종 때 목사로 왔던 이원조의 십경시는 매계(梅溪)의 그것과 제영 및 구조에 있어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품제의 선후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영주십이경 이전의 제주 경승에 대한 집경은 1694년 제주 목사로 온 야계(冶溪) 이익태의 탐라십경과 1702년 도임한 이형상의 영주팔경 등이 있다. 이 중 영주팔경은 한라채운(漢羅彩雲), 화북제경(禾北霽景), 금령촌수(金寧村樹), 평대저연(坪垲渚烟), 어등만범(漁等晚帆), 우도서애(牛島曙靄), 조천춘

랑(朝天春浪), 세화상월(細花霜月) 등으로 현재의 영주십이경과는 다른 차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채운, 저연, 만범, 서애, 춘랑 그리고 상월 등의 표제어 구성으로 볼 때 소상팔경과 유사한 특성이 있으며 제주성 동쪽에만 치우친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경승에 대한 집경으로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 제주의 대표적 경승으로 회자되는 영주십경은 이원조의 탐라록에 '영주십경제화병'이란 어휘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을 원전으로 발전되어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 이원조가 명명한 영주십경은 영구상화, 정방관폭, 굴림상과, 녹담설경, 성산출일, 사봉낙조, 고수목마, 산포조어, 산방굴사, 영실기암인 반면 매계의 영주십경은 성산출일, 사봉낙조, 영구춘화, 정방하폭, 굴림추색, 녹담만설, 영실기암, 산방굴사, 산포조어,

고수목마를 십경으로 수록해 놓고 있음을 볼 때 주경관 대상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화(賞花)를 춘화(春花)로 관폭(觀瀑)을 하폭(夏瀑)으로, 상과(賞果)를 추색(秋色)으로, 그리고 설경(雪景)을 만설(晩雪)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계절 배분을 통한 계절감을 추구하고자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증보탐라지에서 증보의 의미로 영주십경에다 서진노성, 용연야범을 추가하여 제영 없이 영주십이경을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남만리의 탐라지 형승조에서는 제주의 절경 11곳을 선정해 제주십일경을 노래하고 있는데 앞서 영주십경 이외에 추가로 용연야범을 덧붙인 정도이다. 또 김두봉(1936)의 제주도실기에선 ‘영주십경가’란 제목으로 성산출일, 영구춘화, 굴림추색, 산포조어, 고수목마, 녹담만설, 영실기암, 정방폭포, 산방굴사, 사봉낙조를 담고 있는데(<http://cafe.daum.net>), 이 또한 앞서 이한우 또는 이원조의 영주십경과 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주의 경관에 대해서 문필에 뛰어난 선비들이 그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그려 세상에 알리기도 하고 시로 읊어 찬탄하기도 하였다. 이런 전개 및 형상화 과정을 볼 때, 이원조 목사의 탐라순력도는 이익태의 탐라십경 이후 영주십경으로의 변모 및 정착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탐라십경의 형식과 의미

1) 형식

이익태의 지영록(知瀛錄: 1696년경) 『탐라십경도 서(耽羅十景圖序)』에 의하면, “제주 삼읍의 관방의 경치가 좋은 곳, 바

위·폭포의 뛰어난 곳은 이곳저곳에서 서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 모두가 등한시하여 보기만 하고 내버려두었다. 조금도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에는 칭송의 자자함이 없었다. 고로 육지 사람들은 적게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이 가히 애석하였다. 내가 자주 적으며 쓰는 사이에 두 번째로 순력하면서 풍속을 물어볼 겨를이 있었다. 이른바 가히 볼만한 곳에 속속들이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제주삼읍을 두루 살펴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경치의 10 풍경은 화가를 빌어 손수 형상을 본떠 그리고 조그마한 병풍을 하나 만들어 내놓았다.”라고 기술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익태 목사는 숙종 20년(1694)에 제주 삼읍을 두루 살펴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10개소 경치를 가려내고, 화가의 손을 빌어 그리게 한 것으로 보인다. 원전으로 알려진 이익태의 탐라십경도는 현존하지는 않지만 이익태 목사의 지영록에 기록된 10곳의 경승은 관방(關防) 중에서 초천관·별방소·명월소를 꼽았고, 바위가 기이한 곳으로 성산·백록담·영곡·산방 그리고 폭포가 기이한 곳으로 서귀소와 현재 천제연폭포로 불리우는 천지연 그리고 취병담을 들었다.

17세기 말 만들어진 탐라십경도는 현존 작품의 세부내용과 양식이 유사한 상태로 정형화되어 후대까지 그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국립민속박물관본과 일본 고려미술관본은 모두 위쪽에 여백을 두어 사적의 이름과 설명을 적고 아래쪽에 그림을 그리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전체적인 화풍을 볼 때 두 본은 모두 바다의 물결 표현이나 일률적인 나무 표현 등에서도 도식적인 화풍이 나타난다. 조선 중기 약천(藥泉) 남구만(1629~1711)은 함흥과 함경북도 변방의 승경을 형상화한 함흥십경⁵⁾

표 1. 제주 경승에 대한 제영

제영자	시기	집경명	경	출전	비고
야계 이익태	1694년 도입	탐라십경(도)	朝天館, 別防所, 城山, 西歸所, 白鹿潭, 靈谷, 天池淵, 山房, 明月所, 翠屏潭	제가음영집, 매계선생 문집	-
병와 이형상	1702년 도입	영주팔경	漢羅彩雲, 禾北霧景, 金寧村樹, 坪垆渚烟, 漁等晚帆, 牛島曙靄, 朝天春浪, 細花霜月	병와문집	제주성 동쪽 지역에만 치우침
병와 이형상	1703	병담범주 등	순력 등의 주요 행사와 명승지 유람 등을 담은 41폭의 그림	탐라순력도첩	순력 보고
소림 오태직	순종 철종 연간(1807~1851)	이름 없음	漢羅觀海, 瀛丘晚春, 靈室晴晚, 紗峰落照, 龍淵夜泛, 山浦漁帆, 城山出日, 正房瀉瀑	제가음영집, 매계선생 문집	-
매계 이한우	1818~1881	영주십경	城山出日, 紗峰落照, 瀛丘春花, 正房夏瀑, 橘林秋色, 鹿潭晚雪, 靈室奇巖, 山房窟寺, 山浦釣魚, 古藪牧馬	제가음영집, 매계선생 문집	현재의 영주십경과 일치
응와 이원조	헌종 7년 1841	영주십경	瀛丘賞花, 正房觀瀑, 橘林霜靄, 鹿潭雪景, 城山出日, 紗峰落朝, 大藪牧馬, 山浦釣魚, 山房窟寺, 靈室奇巖	제가음영집, 매계선생 문집	-
남만리	1800년대 말엽	제주십일경	鹿潭晚雪, 瀛丘春花, 城山出日, 紗峰落照, 靈室奇巖, 正房夏瀑, 古藪牧馬, 山浦釣魚, 橘林秋色, 龍淵夜帆, 山房窟寺	탐라지 형승조	매계 이한우의 영주십경과 일치
김두봉	1936년	영주십경(가)	城山出日, 瀛丘春花, 橘林秋色, 山浦釣魚, 古藪牧馬, 鹿潭晚雪, 靈室奇巖, 正房瀑布, 山房窟寺, 紗峰落照	제주도실기	매계 이한우의 영주십경과 동일

자료: 오문복, 2004: 4-8, 필자 재정리

도기와 북관십경도기라는 두 기문을 창작하였다. 이 기문은 처음으로 조선 동북면의 산수미를 형상화하여 주목 받은 바 있으며, 특히 약권이 함경도관찰사로서 승경을 유람할 때 화공을 대동하여 승경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은 기문을 붙인 것으로 추론(성당제, 2005)할 때 탐라십경 또한 제작 주체는 물론 그 의도 그리고 표현 대상을 '경승형'으로 표제어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남구만의 '함흥·북관십경도'와 이익태의 탐라십경도는 그림의 구성과 소재, 양식 등에서 유사성이 깊다. '함흥·북관십경도'는 탐라십경도와 같이 위쪽에 여백을 두고 사적을 서술하고 아래쪽에 그림을 그려 병풍으로 만들었다. 18세기 제작된 '관서팔경도'나 김상성의 '관동십경도첩'이 화면 전체에 그림을 그리고 위쪽에 화제를 적은 것에 비해 정형화된 양식이 엿보인다. 조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인 함경도와 제주에 나타난 십경도가 같은 양식을 보이는 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방관의 순력은 조선중기 실경산수화가 유행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관동지역 뿐 아니라 국토 변방인 함경도,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2) 구성과 의의

탐라십경의 경관 내용은 조천관, 별방소 그리고 명월소 등의 관아와 한라산의 백록담과 영곡 그리고 해안과 인접한 서귀포, 산방, 취병담 등으로 구성됨으로써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이 5:3의 비율로 배분되어 있다. 강영조와 김영란(1991)은 중국 소상팔경의 형식으로 분류할 때, 탐라십경의 제영 형식은 명소체형

형의 전형성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조천소과 서귀소 그리고 명월소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9진에 해당되는데 조천소와 명월소는 각각 고려시대 조천관 또는 명월포(현)에 근원을 두는 제주도 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전통은 최소한 조선 중기까지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천진은 중요민속자료로 서귀진과 명월진은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탐라순력도에서 순력회랑상 배제되고 있는 탐라십경은 '백록담'과 '영실' 2개소의 경승이다. 이 두 개 경승의 그림상 표현 내용 및 특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의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록담에는 물을 먹는 사슴과 활 쏘는 사냥꾼 그리고 전설에 등장하는 흰 사슴을 탄 노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백록담 남쪽에는 기우제를 지내던 기우단이 있다. 이밖에 혈석과 곧게 서 있는 바위인 입석이 묘사되어 있고, 백록담 북사면으로는 현 왕관바위로 불리는 구암봉, 주변에 황사암과 현 장구목으로 추정되는 장고항이 표시되어 있다. 주변의 수목은 수종에 따라 매우 특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분화구로 오르는 진입부 좌우는 구상나무 또는 주목 등의 상록침엽수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의 d '영곡'은 영실기암의 독특한 형상이 민화적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세 갈래의 폭포수를 중심으로 운생굴, 존자암이 표시되고 그 아래 절리를 이루는 암벽을 어린벽(漁鱗壁)이라 표현한 것은 생선 비늘 같은 절벽 형상의 비유적 표현으로 보인다. 그림 2의 b '서귀소'에서도 영실의 오백나한의 모습이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 밖에 성산과 천제연, 산방 명월소와 취병담은 이후 고찰할 탐

표 2. 탐라십경에 해당하는 3성 9진의 변천과정과 문화재 지정 현황

구분	시대국	탐라국	고려시대 (고려에 편입, 1105)	조선시대		
				15세기: 3읍체제 9방호소·21수전소	16~17세기 3읍·9방호소·10수전소	
3성	제주목 ^a	관아	대촌현, 축성(1105)	제주목(1416)		
	정회현 ^b			정의현(1423)		
	대정현 ^d			대정현(1418)		
9진	화북진 ^d				화북개	초축(1678)
	조천진 ^c	조천포	조천관(1374)	조천소	조천개	개축(1590)
	별방진 ^d		김녕현(1300)	김녕소	김녕개	김녕방호소 이전(1510)
	수산진 ^d		수산평에 말 방목	수산소(1439)		폐성(1597)→개축(1599)
	서귀진 ^d			서귀소	서곶개	서귀진 이축(1590)
	모슬진			동해소	모슬개	모슬진 이축(1676)
	차귀진		서아막, 차귀현(1300)	차귀소(1439)		개축(1652)
	명월진 ^d		명월포(1270), 명월현(1300)	명월소	명월개	목성(1510)→개축(1592)
	에월진		목성(1270), 에월현(1300)	에월소	에월개	개축(1581)

문화재 지정상황 ^a: 사적, ^b: 중요민속자료, ^c: 시도유형문화재, ^d: 시도기념물

라십경도에서 매우 흡사한 구도와 내용으로 재현되고 있어 이후 고찰하기로 한다.

3. 탐라순력도로 본 제주 경승

국내 유일의 순력화인 탐라순력도는 300년 전 제주의 다양한 경승과 풍물 그리고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해안방어를 담당했던 군사요새들, 최대 말 산지이자 군마공급지로서의 기능을 했던 목장과 그 속의 제주마들, 군사시설을 점검하며 훈련을 독려하던 지방관의 모습, 진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이러한 풍물과 문화의 터전이며 바탕이 되는 제주의 오름과 경골 등 제주의 발자취이자 또 다른 역사의 단면이다. 탐라순력도 41개의 그림 중엔 조점(操點) 양노(養老), 성조(城操), 시사(試射), 강사(講射), 사후(射候), 점부(點簿) 등 방어를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며(신상범, 2000), 탐승 위주의 그림은 성산관일, 김녕관굴, 정방담승, 산방배작, 병담범주 등 5개 그림에 한정되고 있지만 그림의 배경과 첨경적 요소를 합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난다. 탐라순력도 중 대표적 자연요소별 도엽과 경관적 비중이 큰 도엽만을 골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탐라순력도의 제주 경관

(1) 한라산과 오름

산악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주로 세 지역의 오름군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자연적 요소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요소이기도 하다. 93개의 오름은 제주목 48개, 정의현 28개 그리고 대정현 17개로 나타난다. 탐라순력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한라산의 표상성이 아닐 수 없다. 한라산을 주제로 표현한 그림은 산장구마, 제주조점, 병담범주, 호연금서 등으로 한라산만을 대상으로 직접 그린 것은 아니지만 배경으로 한라산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오상학, 2006), 이를 통해 한라산에 대한 경외감과 숭산사상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주변 곳곳에 산재한 오름과 숲 등을 세밀히 표현하고 있다. 팽목동산에는 팽나무의 형상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제주조점'에는 제주목을 점검하는 그림으로 제주읍성 남쪽으로 한라산이 잘 표현되고 있다. 병담범주에서 또한 멀리 바다에서 조망되는 한라산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산정의 백록담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아래 계곡 옆으로는 연대와 어승생오름이 표현되고 있다. 취병담 즉 용연으로 흘러오는 대천[한내]이 삼의양악과 아래악 사이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호연금서'에 표현된 한라산의 모습은 '병담범주'에 표현된 형상과 매우 흡사하다(제주도, 2002).

(2) 읍성과 사적

KBS역사스페셜(2001)에서 탐라순력도 표현 내용의 분석을 통해 결론적으로 '탐라도는 군사 요새'라고 조명했듯이 읍성과

진(鎭) 등이 매우 강력하고 비중 있게 묘사되고 있다. 읍성은 규모면에서 볼 때, 제주읍성, 정의현성, 대정현성의 순이며, 9개의 진성은 18세기 중엽 거주하는 군사 수에 따라 열거하면 별방진성, 명월진성, 화북진성, 조천진성, 모슬진성, 수산진성, 애월진성, 서귀진성 그리고 차귀진성 순이 된다. 특히, 서귀진성의 경우는 과거에 있었던 진의 위치까지 표현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중 명월진성, 조천진성 그리고 서귀진성 등 3개 읍성은 탐라십경과 일치되는 승경이다.

(3) 숲

숲은 그림과 문자를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주로 동서사면에 탁월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제주목의 동부에서는 와호산(臥爭山)→선흘→송당→함덕마을로 이어지는 지역과 서부에서는 조호수(造季水)→수류천(水流川) 마을로 이어지는 지역에 잘 나타나 있으며, '거목수(橋木藪)', '간수(竿藪)' 및 '개마수(介馬藪)'라는 글자로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단나무 숲과 대나무 숲 등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성관악 주변으로 소나무가 울창하게 분포하고 있다.

(4) 동굴과 폭포

동굴과 폭포는 각 2개, 분화구는 1개가 나타나는데, 동굴은 김녕리의 용생굴[만장굴]과 사라봉 밑에 현재의 고래굴로 알려진 비룡굴이며, 분화구는 한라산정 부근의 백록담이라는 문자를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폭포는 서귀진, 남쪽의 정방과 천제담이라는 문자로부터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행사의 장면을 그린 부분도면 중 '성산관일', '우도점파', '별방시제'에서는 우도의 어룡굴이 보이며, '산방배작'에서는 산방굴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우도의 어룡굴은 현재 '룻구멍[東岸鯨窟]'이라고 불리는 해식동굴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에 이르러 동굴 음악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폭포의 경우는 부분도인 '정방담승'에서 정방폭포를, '천연사후'와 '서귀조점'에서는 천지연폭포를, '간습재후'에서는 천제연폭포를 표현하고 있다.

2) 탐라순력도에 표현된 경승

(1) 병담범주(屏潭泛舟)

'병담범주(그림 3a 참조)'의 배경은 오늘날의 용연[취병담]으로 포구와 바다 사이에 작은 사장을 두고 조수가 통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여 빼어난 절경을 이뤘다. 취병담은 제주성에서 불과 5리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풍류객들의 선유 장소로선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현 지명인 용연을 취병담이라 한 것은 용조를 둘러싼 석벽에 아름다운 넝쿨과 들꽃들이 늘어져 있어 매우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신상범, 2000). 용연은 하천에서 수량이 풍부한 지하수가 용출되어 바다와 인접해 있

으면서 차가운 담수호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계곡 호수는 용암열곡(熔岩裂谷)으로 주상절리가 병풍같이 쳐져 있고 맑은 물은 돌기둥의 뿌리까지 보이고 신룡(神龍)이 놀았다고 하여 용연(龍淵)이라 이름 붙여졌다. 달이 있는 밤엔 면경수에 달이 비친 신비스런 경치에 취한 시인 묵객들의 마에명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취병담에서 중앙의 백록담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 조망되는 지형경관이 상세히 그려져 있고, 취병담에 배를 띄워 놓고 기녀들과 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그림 5a 참조). 또한 대천(大川) 우측에 민가의 모습, 용두암 부근에서 잠녀들의 작업광경, 연대의 위치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취병담에서 한라산 백록담을 비롯하여 왕관릉(王冠陵)으로 보이는 연대(煙臺), 삼의악(三義岳), 어승생악(御乘生岳) 등이 거침없이 조망되고 있다. 도면의 하단 오른쪽은 용머리모양의 화산암인 용두암이 표현되고 있다.

(2) 성산관일(城山觀日)

성산 일출봉에서 해 뜨는 광경을 조망한 그림으로 앞서 탐라십경의 '성산'과 매우 흡사한 구도로 표현되면서 일출봉과 우도의 지형이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다. 일출봉 입구에 진해당의 옛 터가 표시되어 있고, 그 위로 일출봉의 정상에 있는 성산망(城山望)까지 오르는 등정길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며(그림 3b 참조), 성산은 울창한 나무가 뺨뺨이 들어서 있어 푸른 숲으로 보인다(제주시, 2002). 이 목사 일행은 오경(五更) 즉 새벽 4시 전후에 정상에 올랐는데 "달이 서쪽 바다로 지고 오직 땅이 희미하게 보이며 파도소리만 들린다."라고 하였다. 또한 해가 솟는 광경을 "한 가닥 부용이 용궁에서 솟아나와 바다를 뛰어올라 공중에 걸려 만상을 다 비추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또한 "이 날은 가벼운 구름조차 사방에서 모두 걷히고 바다와 하늘에 티끌도 없었다. 내 몸이 몇 겹 파도가 흥용하는 가운데 있어 마음 시원히 부상(扶桑)에서 갓 떠오르는 햇살을 보게 되니 한 조각 영대(靈臺)가 삼상한 듯 너른 듯하고 우화등선(羽化登仙)해도 거의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라고 표현했다(제주신문 1995년 4월 5일). 도엽에는 오조연대(五照煙臺)의 위치, 우도와 죽도의 지형 그리고 우도 내에 있는 어룡굴이 표시되어 있다. 현재의 성산일출봉이 단순히 자연경관적 경관대상으로만 알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전사유적지로 의미 조명이 이루어진다면 자연경관적 가치 이외 문화역사경관으로의 새로운 가치도 부여될 것이다.

(3) 산방배작(山房盃酌)

탐라십경도의 산방배작(그림 3c 참조)은 탐라십경의 '산방'과 구도 및 표현기법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산방산은 제주에서 가장 광활한 서쪽 평야 지대와 서쪽 끝자락 바다에서 솟구쳐 나온 듯 한 형상의 거대한 암석산으로 해발 395m에 직경

은 1,200m나 되며, 제주도내 360여개의 오름 가운데 유일하게 정상에 분화구가 없다. 산방굴 입구에는 지금도 노송이 수문장같이 버티고 있는데 순력도에도 소나무가 노송같이 그려져 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 "산방은 현(縣) 동쪽 10리에 있는데 암벽이 모두 험하고 잡초가 동남쪽 바닷가에 무성하게 나고 있다. 속설에 전하기를 상고에 사냥꾼이 한라산에 올라 활꼭지로 천복(天腹)을 찌르니 천체가 노하여 한라산 주봉을 꺾어 여기로 옮겨 세웠다고 하며, 그 남쪽 벼랑에 큰 석굴이 있어 중이 그 속에 불을 만들고 굴암이라 불렀다"고 기술하고 있다. 산방덕의 애ত한 전설이 깃든 산방굴사에서 바라보는 형제도, 송악산, 용두, 사계해안을 조망하는 경관은 지금도 대표적 제주 승경으로서 부족함이 없다(신상범, 2000).

(4) 산장구마(山場驅馬)

산장구마는 한라산 산마장에서 키우던 말들을 한곳으로 몰아 봉진할 말을 가리는 광경으로 위로는 성관악으로부터 아래로 교래리 일대에 이어진 지역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그림 4a 참조). 탐라순력도에 표현된 목장은 탐라순력도가 만들어진 170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존재하던 것을 모두 합쳐 22개소가 확인된다. 성관악 남쪽에서 벌어진 '구마(驅馬)'는 남북 약 40리, 동서 약 60~70리의 넓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책으로 구분되고 있다. 말과 관련된 경관은 제주의 역사와 고유한 풍토 및 풍물상을 일깨우는 중요한 경관요소이다(제주도, 2002). 공마봉진(그림 4b 참조)과 우도점마(그림 4c 참조)에서는 말의 진상과 봉진을 위한 풍물상이 잘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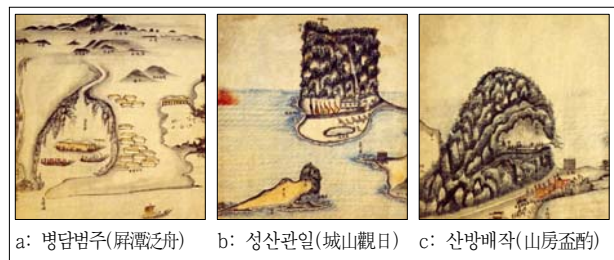


그림 3. 탐라순력도의 대표적 탐승경관
자료: 제주도, 2002: 95, 35, 67



그림 4. 제주마를 주경관요소로 한 경관
자료: 제주도, 2002: 33, 25, 37

(5) 굴림풍악(橘林風樂) · 감귤봉진(柑橋封進)

망경루 후원 굴림에서의 풍악을 묘사한 굴림풍악(그림 5a 참조)은 당시 제주읍성 안에는 동·서·남·북·중 5개의 과원과 별과원 등 6개의 과원 중 북과원으로 추정된다. 전면 왼쪽 건물은 망경루, 오른쪽이 굴림당, 오른쪽 위가 병고, 그 아래는 기생과 악공이 기예를 익히는 곳인 교방이다. 여기에는 본래 여말선초에 상진무청, 부진무청이 있었던 곳으로 과원 가운데 풍악을 즐기는 모습이 상세히 보이며, 과원 외주부를 대나무를 식재재료로 하여 방풍림으로 조성하고 있다(제주시, 2002). 남환박물(이형상, 1704)⁴⁾에 의하면 제주목의 복원과 정의현의 성산원 그리고 대정현의 염둔과원의 경승이 가장 뛰어나다고 적고 있다. 굴림풍악 및 고원방고(그림 5b 참조)에서는 과실의 착색 정도를 달리하여 품종의 다양함을 표현하고 있고(김한용, 2000), 대나무로 외주부를 방풍 식재함으로써 매우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의 c는 조정에 진상하기 위한 감귤을 선별하여 포장하는 광경을 그린 것이다.

(6) 김녕관굴(金寧觀窟)

김녕관굴의 주대상인 김녕굴은 굴 안이 바다에서 서식하는 흰 조개가 부서져 만들어진 매우 특징적 동굴이다. 동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굴은 약 5km 떨어진 해안 당처물굴과 남쪽으로는 세계 최장 용암굴인 만장굴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신상범, 2000), 만장굴과 더불어 1970년 3월 20일 천연기념물 제9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김녕굴은 독특한 뱀굴 전설에 얽힌 서련(徐隣)관관이 뱀을 죽인 전설⁶⁾로 유명하며 '뱀굴신화'는 이 굴이 자연경관과 못지않게 백성을 살리기 위해 약당을 소탕하는 목사의 선정과 무용담을 담은 전설로서 의미경관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7) 정방탐승(正方探勝)

정방폭포의 경승적 가치는 국내에선 유일하게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폭포와 삼도, 의탈도, 문도 등 3개의 섬이 바다호수[正方淵]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지질학적으로는 다른 서귀포 해안대와 동일하게 용기에 의해 주상절리가 돌병풍을 둘러친 형상이다. 순력도에는 주상절리의 지형경관과 초점경관인 폭포

가 어우러져 승경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정방폭포는 탐라순력도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인 진시황 28년(BC 219)에 서불(徐市)이 동남동녀와 더불어 바다로 나가 삼신산의 불사약을 구하려 하였는데 탐라섬을 지나면서 석벽에 서귀포 지명의 유래로 알려진 '서불과지(徐市過之)'라고 새겨놓았다는 전설이 있고 그 석벽은 '정방절벽'이라 알려지고 있다(신상범, 2000). 증보 탐라지에는 '정방은 서귀리에서 1km 동쪽에 있다.'고 하여 당시 정방 주변은 일망무제한 경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방폭포 일원 10,529m²는 2008년 8월 명승 제 34호로 지정되었다.

(8) 현폭사후(懸瀑射侯) · 천연사후(天淵射侯)

현폭사후의 경관대상인 천연현폭포의 하폭은 높이 17m, 너비 8m의 삼단폭포로 이뤄졌다. 첫 폭포의 주상절리 밑으로 흘러내리는 지하수는 매우 맑아 일곱 선녀들의 전설이 있으며, 규모는 작지만 지하수 맑은 물과 국내에선 드문 안산암 절벽층 때문에 아름다운 경관지로 당시에도 꼽혔던 것으로 추정된다. 탐라십경의 '천제연'은 탐라순력도의 '현폭사후'와 그 구도는 물론 전반적인 화면구성과 내용 그리고 경물 포치가 거의 일치되고 있음을 볼 때 양 그림의 표현주제 및 그 목적이 거의 일치된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본다. 한편, 천연사후의 주경관대상인 천연현폭포와 주변 계곡은 수목이 매우 울창하였으며, 바다 어구에서 폭포까지 접근하는 길이 없어 아무나 접근하기가 어려웠고 상류의 대천을 따라 내려오다가 만나는 신비하고 의미 있는 승경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신상범, 2000). 천연연은 바다에서 폭포까지 1,500m나 되는 서쪽은 안산암으로 된 높이 약 20m의 병풍바위로 둘러져 있으며, 22m의 폭포와 1백여 평의 자연호수에는 무대장어가 서식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27호로, 당시부터 울창했던 숲은 천연기념물 182호로 지정되고 있다.

4.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경승관

탐라십경 중 주경관요소가 탐라순력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은 그림 6에서와 같이 서귀소의 서귀조점, 천지연의 현폭사후, 명월소의 명월조점 그리고 취병담의 병담범주 등 4개 경관이다.

표 3은 탐라순력도 총 41폭의 그림 중 압도적으로 승경 위주로 묘사되고 있는 14매의 도엽을 선별한 뒤 경물 및 표제어 분석을 통해 그림의 주경관요소와 묘사된 경관상 그리고 주요 출현 경물 및 지명을 분석 정리한 결과이다. 그림 7의 호연금서에서 보듯이 탐라순력도에 표현된 경승위주의 도엽은 산장구마를 제외하고는 주로 해안가에 포치되어 있고 비교적 동서남북 사방에 고르게 분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관묘사에 비중을 둔 도엽에서는 한라산을 비롯하여 성판악, 산방굴, 성산일출



그림 5. 제주 감귤을 주경관요소로 한 경관

자료: 제주도, 2002: 65, 2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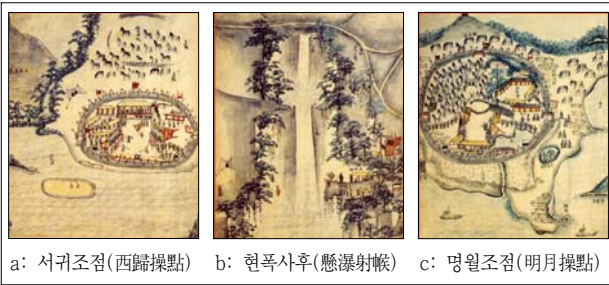


그림 6.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탐라십경
 자료: 제주도, 2002: 61, 63, 81

봉 등의 이름을 주제로 한 산악경관과 비양도와 우도 등의 섬, 천제연폭포,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등 3개의 폭포 그리고 취병담과 김녕굴 등의 기관(奇觀)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또한 고원방고나 굴림풍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감굴림을 배경으로 한 풍류' 등과 산장구마나 고래협 등에서 볼 수 있는 '방목된 제주마와 수렵생활 등' 제주 고유의 풍물을 담은 경관내용이 망라되고 있다. 한편, 남한박물에도 경승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 경관대상 오늘날에도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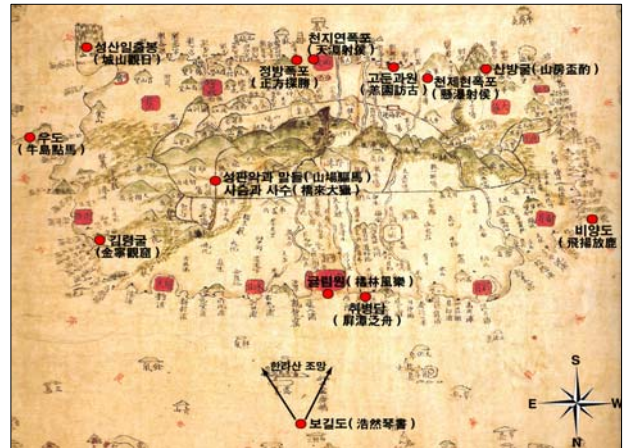


그림 7. 탐라순력도상에 표현된 제주의 주요 승경
 자료: 제주도, 2002: 104

로서 주목받고 있는 대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목의 취병, 용두 및 용생굴, 정의현의 정방과 성산, 대정현의 천제담, 산방과 송악 등은 지금도 유명 관광지이며 경승으로 분류되는 지명들이다.

표 3. 탐라순력도 중 경관묘사가 탁월한 그림의 분석

도첩명	주경관대상	경관요소	묘사된 경관상	주요 출현경물
호연금서 (浩然琴書)	한라산	악(岳)	보길도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며 호연한 마음으로 거문고를 타며 책을 읽음	백록담, 어승생, 원당망, 사라망, 별도포
비양방록 (飛揚放鹿)	비양도	도(島)	생포한 사슴을 비양도에 방사하는 경관	비양도와 대나무, 제주목 서면의 민가, 월명진, 해안의 지형, 봉수, 애월진, 명월진
병담범주 (屏潭泛舟)	취병담	담(潭)	취병담에서의 뱃놀이하는 풍경	취병담, 뱃놀이, 민가, 용두암, 해녀, 백록담 등 한라산
산방배작 (山房盃酌)	산방굴	굴(窟)	산방굴에서의 배작(盃酌)하는 광경	송악산, 형제도, 군산, 감산, 용두
고원방고 (羔園訪古)	고둔과원	과원(果園)	고둔과원 왕자구지(王子舊地)에서 기녀들의 거문고와 풍악을 즐기는 광경	과원, 방풍림, 참나무와 매화나무밭, 운량천(추정)
현폭사후 (懸瀑射侯)	천제현폭포	폭(瀑)	천제현폭포에서 활 쏘는 모습	천제현 상하폭, 표적, 활쏘기
천연사후 (天淵射侯)	천지연폭포	폭(瀑)	천지연폭포에서 활 쏘는 광경	천지현 상하폭, 표적, 활쏘기
정방탐승 (正方探勝)	정방폭포	폭(瀑)	배를 타고 정방폭포를 탐승하는 경관	폭포, 배, 곰솔(소나무)
김녕관굴 (金寧觀窟)	김녕굴	굴(窟)	김녕의 용암굴에 햇불을 들고 들어가는 광경	용암굴(사굴과 만장굴), 입산(笠山)
우도점마 (牛島點馬)	우도	도(島)	우도목장내 말을 점검하는 그림	우도, 어룡굴, 성산
성산관일 (城山觀日)	성산일출봉	봉(峰)	성산일출봉에서 해 뜨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광경	일출봉, 우도, 어룡굴, 봉천수
산장구마 (山場驅馬)	성판악과 말들	마(馬)	산장에서 말을 몰아 일정한 장소에 모우고 마필수를 확인하는 경관	성판악, 미원장, 두원장
고래대협 (橋來大獵)	사슴과 사수	록(鹿)	고래 지경에서 진상을 위한 산짐승과 날짐승을 사냥하는 경관	대독산, 관매동산, 흑악, 봉라비악, 말 탄 무사, 사수, 군기, 사슴
굴림풍악 (窟林風樂)	굴림원	굴원(窟園)	망경루 후원 굴림에서의 풍악을 즐기는 풍경	망경루, 굴림대, 과원, 대나무

5.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 그리고 영주십이경과의 관련성

탐라십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영주십이경은 성산일출의 성산, 백록담의 백록담, 영실기암의 영곡, 산방굴사의 산방, 용연야범의 취병담 그리고 서진노성의 서귀소 등 총 6개 경승이다. 이 중 이형상목사의 순력회랑에서 배제된 백록담과 영곡을 배제하고는 현 영주십이경에 해당하는 탐라십경의 승경은 모두 망라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추가로 우도점마 또는 산장구마 등을 통해 영주십이경의 제 10경인 고수목마의 경관 이미지가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다(표 4 참조). 결론적으로 탐라십경 상의 10개 경승은 순력회랑에서 배제된 백록담과 영곡을 배제하고는 모두 탐라순력도에 부각되어 조명되고 있으며, 눈을

표 4. 영주십이경에 미친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의 흔적

순력도명	탐라 십경	영주 십이경	해당 지역	순력도명	탐라 십경	영주 십이경	해당 지역
한라장축	제주전도	제주도	현포사후				중문동
곰바봉진		삼도동	산방배작	산방	산방굴사	사계리	
승보시사			대정조점				
성산관일	성산	성산출일	성산리	대정배진, 대정양노			보성리
우도점마	고수목마	우도면	대정강사				
교래대립		교래리	모슬점부				하모리
산장구마	고수목마		차귀점부				고산리
화북성조		화북동	명월조점	명월소			동명리
조천조점	조천관	조천리	명월시사				
별방조점	별방소	하도리	에월조점				에월리
김녕관굴		김녕리	제주조점				
별방시사		하도리	제주전취				삼도동
정의조점		성읍리	제주사회				
수산성조		수산리	제주양노				
정의양노		성읍리	건포배은		산포조어	건입동	
정의강사			비양방록				비양리
정방탐승	정방하폭	정방동	감굴봉진, 굴림풍락		굴림상과	삼도동	
서귀조점	서귀소	서진로성	서귀동	병담범주	취병담	용연야범	용담동
천연사후	천지연	천지동	호연금서				화북동
고원방고		용흥동	탐라 순력도 배제 승경	백록담	녹담만설		
				영곡	영실기암		
					사봉낙조		
					영구상화		

표 5. 제주 승경의 관련성과 변모과정

경(景)	탐라십경과의 관계		탐라순력도와의 관계	
	경승명	일치여부	경승명	일치여부
성산출일(城山出日)	성산	●	성산관일(城山觀日)	●
사봉낙조(紗峰落照)	없음	○		○
영구춘화(瀛丘春花)	없음	●	병담범주(屏潭泛舟)	●
정방하폭(正房夏瀑)	없음	○	정방탐승(正方探勝)	●
굴림추색(楡林秋色)	없음	○	감굴봉진(柑橋封進) 굴림풍악(楡林風樂)	●
녹담만설(鹿潭晚雪)	백록담	●		○
영실기암(靈室奇巖)	영곡	●		○
산방굴사(山房窟寺)	산방	●	산방배작(山房盃酌)	●
산포조어(山浦釣魚)	없음	○		○
고수목마(古藪牧馬)	없음	○	우도점마(牛島點馬) 산장구마(山場驅馬)	●
용연야범(龍淵夜帆)	취병담	●	병담범주(屏潭泛舟)	●
서진노성(西鎭老城)	서귀소	●	서귀조점(西歸操點)	●
순수 승경 일치율	70%		80%	

범례: ● 주대상 일치, ● 행위 일치, ● 대상장 일치, ○ 관련 없음

둘러 영주십이경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역시 녹담만설과 영실기암 등 2개 경관을 배제하고 현 영주십이경의 승경에서 빗겨서 있는 경승은 사라낙조, 산포조어, 영구춘화 등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구춘화의 대상장인 영구(瀛丘)는 방선문(訪仙門)의 별칭이며, 결국은 취병담의 상류계곡에 해당되므로(현행복, 2004) 영구춘화는 취병담의 연계경관이라 할 수 있다. 병담범주(그림 3a 참조)를 보면 취병담 남쪽을 향해 바라본 산의 지형이 상부 중앙의 백록담까지 상세하게 그려지고 대천이라 명기되고 있음이 이를 확인시켜 준다.

표 5에서와 같이 영주십이경 중 탐라십경과 일치되는 경관은 성산출일을 비롯하여 6개소로 일치율은 70%이며, 탐라순력도에 표현된 경승과는 주대상 일치 4개소, 행위 일치 2개소 그리고 대상장 일치 2개소 등 총 8개 경관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영주십이경 중 탐라순력도 회랑에서 배제된 한라산 정상부 등을 제외하면 승경 일치율은 80%에 이른다.

V. 결론

이원조 목사의 탐라십경도와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를 기본 텍스트로 문헌고찰과 함께 그림에 표현된 경관 묘사와 경

승표현 및 그 내용을 고찰하고 상호 연관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이후 2차 비교 텍스트인 영주십이경의 형상화 과정을 추론하여 제주의 승경 변천사와 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탐라십경도와 탐라순력도는 그 제작 목적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각화방이 다른 점을 보정한다면 매우 유사하고 조망구도와 경물 세부 표현 등에서 매우 흡사함이 인정된다. 탐라십경 중 백록담과 영실은 한라산 산악경관의 신화형성의 장으로서 상징체이며, 해안을 중심으로 포진된 9성 3진의 하나인 조천진, 서귀진, 명월진 등은 방어진지로써 자연경관이 우월한 제주에서 강역 사수와 군사적 요충지의 특성을 갖는 장소성 높은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함축한다. 탐라순력도 또한 제주의 성을 표현한 내용이 12장으로 압도적인 빈도를 보여주고 있음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읽혀진다. 또한 제주마와 감귤 등의 진상과 관련된 봉진 그림이 5장이나 표현되고 있음에서 엿볼 수 있듯이 '방어'와 '조정 진상'이 탐라순력도 제작의 매우 중요한 동기가자 이러한 필연성이 제주 풍물경관의 특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음은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탐라순력도 총 41폭의 중 승경의 표현은 한라산을 비롯하여 성판악, 산방굴, 성산일출봉 등의 으뜸 등 산악경관과 비양도와 우도 등의 섬, 천제연폭포,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등 3개의 폭포 그리고 취병담과 김녕굴 등 기관이 탁월한 지형경관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또한 고원방고나 굴림풍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감귤림을 배경으로 한 풍류' 등과 산장구마나 교래대협 등에서 볼 수 있는 '방목된 제주마와 수렵생활 등' 제주 고유의 풍물을 담은 경관내용이 망라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탐라십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영주십이경은 성산일출의 성산, 백록담의 백록담, 영실기암의 영곡, 산방굴사의 산방, 용연야법의 취병담 그리고 서진노성의 서귀소 등 총 6개 경승이며, 이 중 이형상 목사의 순력회랑에서 배제된 백록담과 영곡을 배제하고는 현 영주십이경에 해당하는 탐라십경의 승경은 모두 망라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추가로 우도점마 또는 산장구마 등을 통해 영주십이경의 제 10경인 고수목마의 경관 이미지가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다. 탐라십경상의 10개 경승은 순력회랑에서 배제된 백록담과 영곡을 배제하고는 모두 탐라순력도에 부각되어 표현되고 있다. 영주십이경 중 탐라십경과 합치되는 승경은 성산일출을 비롯하여 7개소로 일치율 70%에 이르며, 탐라순력도 회랑에서 배제된 한라산 정상부의 2개 승경을 배제한다면 탐라순력도에 표현된 승경과는 주대상 일치 4개소, 행위 일치 2개소 그리고 대상장 부분 일치 2개소 등 총 8개 경승과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경승 순수 일치율 80%에 이르는 것이다.

현재의 대표적 경승으로 회자되는 영주십이경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녹담만설과 영실기암 등 2개 경관 이외영주십이경

의 승경에서 빗겨서 있는 경승은 사라낙조 단 1개소의 경승이다.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에서 공히 강조되고 있는 장소 및 공간 그리고 그 경물 요소는 이후 소림 오대적, 매계 이한우, 응와 이원조, 남만리 그리고 김두봉 등 선인들에 의해 꾸준히 전승되고 되풀이 되는 등 침식과정을 거쳐 오늘의 영주십이경으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주십이경은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 집경에 대한 탐구와 시적 표현 등을 통한 오랜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문화경관이라 할 만하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세부적 경관상과 세부 경관요소에 대해서는 지면 부족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 문헌 및 자료 고찰에 의존한 관계로 현장감을 살리기에는 미흡함이 있다. 앞으로 실증적 자료 발굴 및 사례연구 등을 통한 보완 등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 주 1. 남사록에 수록된 사항은 제주를 왕래하는 도중에 견문한 것으로 제주도의 풍토, 물산, 형승, 민정, 풍속, 고적 공헌, 성지, 향구, 군비, 폐막 그리고 주요한 건설물 등이다. 이 책에는 특히 진공과 군역으로 인한 민고에 대하여 상세히 적었는데 당시의 제주도 사회상을 엿보는 데에 좋은 참고가 되며, 제주와 육지 사이의 항해 상황 및 노정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http://jeju.go.kr>).
- 주 2. 본관은 전주, 1653년(癸巳)생, 태종의 10세손, 숙종(肅宗) 6년(경신, 1680) 별시(別試) 병과에 급제하고 호조좌랑 재직 때에는 동지사가 청나라에 가지고 가는 세폐포(歲幣布)의 치수가 해마다 늘어나서 병자년 이후에 바치던 것보다 9척이나 긴 것을 알고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무궁한 폐단이 될 것이라 우려하여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길이만큼 끊어 버리고 보냈다고 한다. 그는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경륜으로 재능 있는 관리였으나 당쟁의 폐습 속에서 불운을 겪었으나 그 대신 학문의 세계에 몰두하여 다양하고 심오하며 방대한 양(60여종 200권)의 저술을 세상에 남겼다.
- 주 3. 『南奈博物』은 『耽羅巡歷圖』의 저자인 이형상 목사가 서술한 지방지(地方誌) 중의 하나로, 제주목사를 이임(離任)하고 난 다음해인 숙종 30년(1704)에 그가 사용하던 호연정(浩淵亭, 경북 영천 소재)에서 집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읍호(邑號), 노정(路程), 바다(誌海), 도서(誌島), 기후(誌候), 지리(誌地), 경승(誌勝), 사적(誌蹟), 성씨(誌姓), 인물(誌人) 등 37항목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18C초 제주도의 지리도 내용을 담은 지리학 개론서 혹은 지역지리서(地誌書)라 할 수 있다.
- 주 4. 영주십이경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瀛州十景詩는 梅溪 李漢雨(1818~1881)의 필사본 문집인 『梅溪先生文集』에 수록된 七言律詩로 제주의 경관을 品題하고 열 곳을 골라 시적인 이름을 붙여 노래한 것이다. 김새미오(1999)는 매계의 시세계에 영향을 준 변환기적 모멘트로 과거 낙방과 좌절→천명 인식과 자연 귀의→수신 의지와 현실 초탈→瀛州十景의 형상화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瀛州十景 品題의 영향을 준 창작동기를 秋史 金正喜와의 만남, 진경문화와의 접촉 그리고 林逋의 西湖十景詩의 영향 등을 꼽은 바 있다. 그 뒤 제주도 도내외의 대가들과 후대 시인들이 瀛州十景詩를 次韻하여 佳句와 名聯을 많이 남김으로서 瀛州十景은 제주의 대표적 경승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梅溪가 品題하고 題詠된 시는 율하 김용식, 난곡 김양수, 석호 고영훈, 영암 유당 등 수 많은 문인학자들이 차운함으로써 瀛州十景을 소재로 한 시는 중국의 瀟湘八景과 같이 제주를 대표하는 경관으로 공론화되고 品題를 계속해 오므로 오랜 세월 향유된 실존적이며 전통적 경관상의 모본이라 본다.
- 주 5. 약천 남구만이 본인의 안목으로 선정한 열 개 경승으로 합흥십경은 흥

양지, 분공, 제성단, 격구정, 광포, 지락정, 낙민루, 일우암, 귀경대, 백약폭포, 금수굴이며, 북관십경은 함흥 읍내를 제외한 함경도 전 지역에 산재한 열 곳 승경으로 학포, 국도, 도안사, 계궁정, 석왕사, 성진진, 칠보산, 창열사, 용당 그리고 무이보 등이다.

- 주 6. 서련 판관은 이조 11대 중종 10년(서기 1515년) 제주판관으로 부임했는데, 이 곁에 큰 뱀이 살면서 해마다 15세 난 처녀와 오곡을 바쳐 왔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일 년 내내 마을에 재앙을 몰고 와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것이다. 19세에 초임 판관이 된 서련은 처녀와 오곡을 바치는 제삿날에 군사를 거느리고 무기를 가지고 와 이 뱀을 죽였고 제주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은 뱀이 구름을 타고 쫓아와 이에 놀란 서련은 2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22살의 약관에 죽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설은 이 지역이 구좌 일대의 말을 방목하는 거대한 목장이고, 김녕 마을에서 5km나 떨어진 지역으로 불량배들이 농사하러 다니는 아녀자들을 납치하고 마을 식량을 노략질하여 마을 주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혈기왕성한 서련판관이 이들 악당 무리들과 싸워 이들을 토벌하고 돌아가는 길에 잔당들에 의해 습격 당해 죽은 것으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전 김녕굴 관리인 金君天씨 증언).

인용문헌

- 강창룡(2004) 이익태 제주목사와 탐라십경도. 제주문화예술재단 13: 4-7.
- 강영조, 김영란(1991) 한국관경의 형식과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9(2): 27-36.
- 김대용(2001) 제주관광론. 백산출판사.
- 김두봉(1936) 제주도실기. 4권. 제주도실적연구사.
- 김상범, 서주환, 노재현(2007) 제주도 우도관경의 의미상징성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5(영문판): 24-33.
- 김새미오(1999) 배계 이한우의 시문학과, 영주어문학회 11: 51-74.
- 김태호(2002) 한라산의 지형경관.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지 15(1): 15.
- 김한용(2000) 탐라순력도의 감귤산업 사적 의의. 탐라순력도 연구논총: 130-139.
- 노재현, 신상섭, 김상범, 조찬문(2007) 영주십경의 형식구조와 의미내용을 통해 본 제주의 경승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2): 47-58.
- 성당재(2005) 약천 기문의 산수미 형상과 서술적 특징: 『함흥십경도기』와 『북관십경도기』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4): 383-406.
- 신상범(2000)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경관지. 탐라순력도 연구논총. pp. 185-195.
- 신영대(2004) 제주문화 속의 오름: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4: 179-208.
- 제주도(2002) 탐라순력도. 서울: 로알프로세스.
- 제주홍사단 문화유산답사회(2005) 탐라순력도를 따라서①. pp. 1-20.
- 오문복 편저(2004) 영주십경 시집. 제주문화. 동양문화연구소번역총서 7: 4-8.
- 오상학(2006) 지도와 地誌로 보는 한라산. 한라산의 인문지리. 제주도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이보라(2007) 17세기 말 탐라십경도의 성립과 '탐라순력도첩'에 미친 영향. 온지논총 17: 69-91.
- 이익태 저, 김익수 역(1977) '지영록'. 제주문화원.
- 이원조 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역(1989) 탐라지초본(영인본).
- 이형상(2009) 남환박물: 남쪽 벼슬아치가 쓴 18세기 제주 박물지. 서울: 푸른역사.
- 현행복(2004) 제주문화의 원류찾기 4. 방선문. 제주. 각출판사.
- KBS역사스페셜(2001) 탐라순력도, 제주는 군사 요새였다. 역사스페셜 3. 서울: 효형출판.
- <http://cafe.daum.net/naturalscience/GDK9/12?docid=17N7XIGDK9/12/20070307014743&q>
- <http://jeju.go.kr/sub/index.php?contents=2355&act=view>
- http://nature.jeu.go.kr/board1/?ac=view&seq=496&lnum=469&pageNo=10&tn=view_bbs_news&
- http://virtualjeju.culturecontent.com/culture/culture.asp?page=a_03_12

원 고 접 수 일: 2009년 7월 1일
 심 사 일: 2009년 8월 6일
 계 재 확 정 일: 2009년 8월 14일
 3 인 의 명 심 사 필